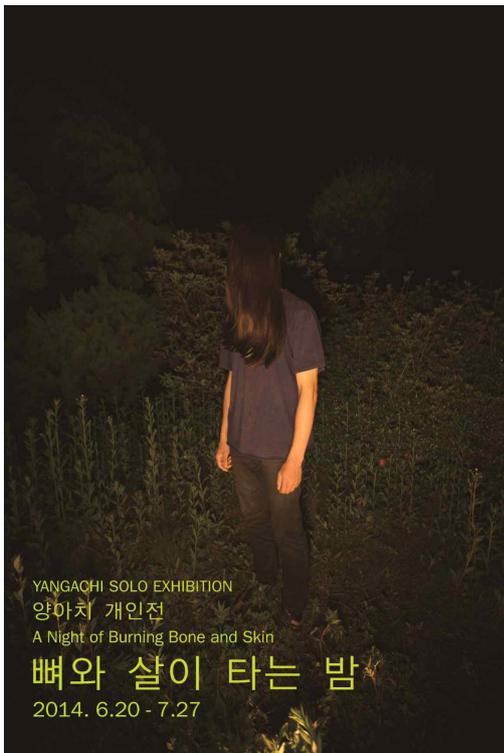


양아치 개인전: 뼈와 살이 타는 밤

Yangachi Solo Exhibition: A Night of Burning Bone and Skin



전시명 : 양아치 개인전:뼈와 살이 타는 밤

Yangachi Solo Exhibition: A Night of
Burning Bone and Skin

일 시 : 2014년 6월 20일(금) - 7월 27일(일) 38일간

장 소 : 학교재갤러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품작 : 44 점

1. 전시 개요

학교재 갤러리는 6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미디어 아티스트 양아치(45)의 개인전 <뼈와 살이 타는 밤展>을 개최한다. <뼈와 살이 타는 밤>은 1980년대 초 신군부가 추진한 이른바 '3S' 정책의 일환으로 제작된 영화의 제목인데, 80년대 당시 '3S'정책으로 변화한 사회와 약 30년이 지난 지금의 병든 사회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작가가 직접 이와 같은 전시제목을 선정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 양아치가 선보이는 5년만의 개인전임과 동시에 학교재 갤러리에서의 첫 개인전이다. 작가는 본 전시에서 예전작업에서 더 나아가 자기조작과 틀을 깨고 작가 자신의 본질적인 힘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반복되지 말아야 할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40대 작가'로서의 사회 참여적 목소리를 내하고자 한다.

본 전시는 빛과 어둠, 현실과 허구라는 가장 상반되는 두 주제를 사용하여 많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시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황금산과 같은 이상향과 현실을 나타내는 칠혹같은 어둠이 그 것이다. 전시는 반대되는 이 두 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관객들은 전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촉각을 시각화하려고 노력한 작가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44점의 입체와 사진, 영상 작품들이 선보이게 된다.

2. 전시 구성



황금산(黄金山), 2014, Mixed Media, 177x89x217cm



뼉와 살이 타는 밤, 2014, C print, 150x100cm



Old Spice, 2014, Single Channel Video, 5분 10초

양아치의 신작 <뼉와 살이 타는 밤>은 항상 새로운 방식의 작업에 도전하는 작가가 약 6개월여 동안 인왕산을 야간에 오르내리며 탄생시킨 작품이다. 작가는 자신의 우울함을 달래며 스스로 본질적인 에너지를 찾기 위해 야간 산행을 시작하였고, 이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고 말한다.

<뼉와 살이 타는 밤>에서 남자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들고 가며 인적 없는 산과 들판, 물속 어딘가를 헤매고 있다. 남자의 발자국 소리와 가쁜 숨소리 외에 세상은 고요하다. 어둠은 낯익지 않고 남자는 미로 같은 길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맨다. 그는 어둠에서 탈출하기 위해 작은 동굴에서 벗어나 보지만 곧바로 더 큰 동굴 속에 갇히고 만다.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 대입시켜보면 반복 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다. 작가는 어둠으로 대변되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반복에 대해 관객에게 질문하고 있다.

동시에 양아치는 꿈과 현실을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설 구운몽과 우리의 현실이 유사하다고 말한다. 현실에 살아 있어야 할 것이 죽고, 죽어야 할 것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구운몽의 세계'와 3S가 지배하던 30년 전의 세계, 그리고 지금의 세계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작품 속의 망초는 죽어있는 땅을 의미한다. 망초가 무성한 가운데 자라난 복숭아는 신성한 과일이자 생명력을 대변하고 있다.

빛나는 <황금산>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공간임에 동시에 이상적인 공간이다. 앵두 꽃밭의 늑대인간, 새의 형상은 모두 꿈과 같은 허구 또는 허상의 세계에 존재한다. 작가가 만난 인왕산의 세계는 황금산이다. 그는 그 곳에서 기도터 할머니, 여인바위 대구 무당, 모자바위 무당과 박수, 범바위 고양이 등을 만났다. 그가 마주한 인왕산의 세계는 삭막하고 도시화된 커뮤니티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인왕산에 위치한 기도터와 기도 동굴에서 작가는 조심스럽게 다른 세계의 아름다운 언어를 마주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3. 작가 노트

늑대 인간. 어두운 밤. 계섬월이 얼른 따라 나와 다리 남쪽 앵두꽃이 무성한 집이 자기 집이라고 일러준다.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내가 바라본다. 검은 해골 바위. 어제의 비둘기가 바라본다. 검은 숲에서 붉은 빛이 새어 나온다. 검은 까마귀는 붉은 비둘기를 바라본다. 이미 죽어 있어야 할 것이 살아있고, 이미 살아 있어야 할 것이 죽어있는 검은 동굴. 세 가지 팔을 가진 사내. 검은 바위를 가르면, 황금이 드러난다. 그렇게, 앵두 꽃이 무성한 강물이 있다.

그르릉. After a while, it reveals. (크르릉). 작은 동굴을 벗어나니, 큰 동굴이 있다. Sproing, 뿡, Wobble, 뒤뿡, Shlurp, 쓰읍, Slither, 스프룩.

금색 할머니 바위. 상서로운 기가 이런 구멍에서 나와 석지와 옥고를 자라게 하는데, 이것들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신령스러운 용과 거북이도 이런 구멍 속에서 출몰했다. 신선이 주는 배와 대추를 먹으면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세상의 광야를 걸어가다가, 나는 우연히 동굴이 있는 곳을 만났다. 나는 거기 누워 잠을 잤는데, 자면서 한 꿈을 꾸었다. 나는 황금산(黃金山)에서 장희빈 기도터 할머니, 석굴암 산신 할아버지, 치마바위 미륵존불, 여인바위 대구 무당, 모자바위 무당과 박수, 범바위 고양이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앵두 꽃이 무성한 집이 있다.

양소유는 숲 속을 걷는다. 어두운 밤이다. 성진은 길을 밝히며 걸어간다. 어두운 숲에서 여인 바위가 나타나서 말을 건넨다. 계섬월이 얼른 따라 나와 다리 남쪽 앵두꽃이 무성한 집이 자기 집이라고 일러준다.

4. 작가 약력

양아치

- 1970 부산 출생
1997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2006 연세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아트과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 2014 뼈와 살이 타는 밤, 학교재 갤러리, 서울
2009 미들코리아 : 양아치 에피소드 III, 아트센터 나비, 서울
2008 미들코리아 : 양아치 에피소드 II, KT&G 상상마당 갤러리, 서울
미들코리아 : 양아치 에피소드 I, 인사미술공간, 서울
2003 전자정부, www.eGovernment.co.kr, 인사미술공간, 서울
2002 양아치 조합, www.yangachiguild.com, 일주아트하우스, 서울

단체전

- 2014 원스 이즈 낫 이너프, 시청각, 서울
2013 끝이 만나는 곳, 갤러리 우그, 리옹, 프랑스
해인아트 프로젝트, 해인사, 합천
미술관의 탄생,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관, 서울
2012 플레이 타임, 문화역 서울 284, 서울
국가의 소리,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2011 레이버 오브 러브, 리비지티드, 아르코미술관, 서울
고래, 시간의 잠수자, 국립극단 소극장 관, 서울
NJP 씬머 페스티벌 스물 하나의 방,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
5C5C, KT&G 상상마당 갤러리, 서울
2010 향기로운 봄, 영경레방 아트센터, 영경레방, 프랑스
아시아 현대미술상, 소마미술관, 서울
감시, 넷필름메이커, 코펜하겐
랜덤 액세스,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
사운드 이펙트 서울 2010: 장소 특정적 사운드, 공간 해밀톤, 서울
2009 요코하마 국제 미술미디어 페스티벌 IFAMY,뱅크 아트 스튜디오 NYK, 요코하마, 일본
실험실 02: 도시 피크닉, KT&G 상상마당 갤러리, 서울
플랫폼 2009, 기무사, 서울
페인드 이노센스: 위 올 룩, 패러/사이트 CTP 08/09, 오세이지 쿤 통, 홍콩

- 2008 실험실 01: 사회적 개입, KT&G 상상마당 갤러리, 서울
백남준 페스티벌,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
쌈지 스페이스 1998-2008, 쌈지스페이스, 서울
디지털 플레이그라운드 2008 -도시해킹, 토탈미술관, 서울
12x36 로컬 렌즈, 아트스페이스 휴, 서울; 222 갤러리, 필라델피아; 리비짓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 2007 인터미디에_민박, 인터미디에, 마드리드
- 2006 국제작가포럼 2006 '공공의 순간', 갤러리 꽃, 서울
온 디퍼런스 #2: 경계선, 뷔르템베르크 미술협회, 슈투트가르트, 독일
- 2005 도시의 바이브: 노는 도시의 미술, 아트센터 나비, 서울
- 2004 젊은 모색,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경기도미술관, 안산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용인